

# 인도네시아의 석유와 가스

## 1. 석유수출국기구(OPEC) 창설회원국

인도네시아는 석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우려하지 않았다. 석유수출국기구의 창설회원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몇 개 안되는 가장 큰 석유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외국의 약탈자들로부터 자국의 경제선을 보호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여 왔다. 결국 2차 세계대전시 일본은 원유를 얻기 위한 목적도 포함해서 인도네시아를 침략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이제 과거지사가 되어버렸다. 석유생산의 침체 그리고 경제성장의 빠른 속도와 마찬가지로 국내 석유소비증가는 인도네시아가 그 자신의 산업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석유의 실질적인 수입국이 될 날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2. 석유 수입국으로의 변신

이와 같은 실질적인 석유의 수입국이 되는 날짜가 언제가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기우론자들은 1998년이면 인도네시아는 실질적인 석유수

입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보수적인 추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시기는 2005년과 2010년 사이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는 전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빨리 새로운 유전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나 현재 외국 석유회사들은 인도네시아의 매력적이지 못한 조건 때문에 새로운 시추와 정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부터 후퇴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영석유회사(PERTAMINA : Perusahaan Pertambangan Minyak dan Gas Bumi Negara) 사장인 파이잘 아브다(Faisal Abda'oe)씨는 “만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인 석유 수입국이 되는 것이 빨라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 3. 석유수출의 감소

대세는 명백하다. 인도네시아는 하루에 150만 배럴의 원유와 응축물 또는 석유부산물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 발견되는 유전은 이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연료로서의 수요-전체생산의 약 50%-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원유수출은 대부분이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미 바닥이 타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즉 수출은 1993년에 3% 감소한 2억4900만 배럴이었는데 반해 수입은 15% 증가한 약 4500만 배럴이었던 것이다. 또한 1994년도의 잠정수치는 약간 개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도 장기적인 추세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4. 연료가격의 자율화

이와 같은 사실이 내포하는 암시는 가격보조를 받고 있는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소비자와 회사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임을 뜻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디젤연료 1리터의 가

격이 16 미국 센트인 바 이 가격은 일본의 68센트, 싱가포르의 34센트 그리고 베트남의 24센트에 비하여 크게 저렴한 수준인 것이다.

국영석유회사의 한 간부는 “우리는 금년에 연료 가격을 자율화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료의 가격을 변동시세로 옮기는 어떠한 조치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에 충격을 주게 될 것이 틀림없다.

## 5. 외화수입의 감소

또한 이것은 단지 가격문제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다. 다른 우려는 증가하는 국내수요가 1994년에 101억달러에 달하였던 인도네시아의 석유수출에 의한 외화수입의 큰 몫을 잠식해버리거나 않을지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외환과 정부 세수에 있어서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해 왔다. 역사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번영은 국제적인 석유가격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94년의 석유가격상승은 거의 1000억달러에 이르며, 이중 40%가 엔화 표시인 외부부채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 6. 국제 석유가격

현재 국제적인 석유가격은 배럴당 인도네시아 재무성의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가격인 16달러를 상당히 상회하는 19달러 전후이다. 석유가격의 매 배럴당 1달러 상승은 정부세수가 5억달러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자카르타의 크로스비 증권(Crosby Securities)의 경제연구 책임자인 레이몬드 푸(Raymond Foo)씨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앞으로 닥치게 될 곤란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전략은 변방지역에서의 석유와 가스의 탐사 촉진이다. 이와 병행하여 천연가스의 생산과 국내소비의 촉진도 이 전략에 포함된다.

## 7. 규제와 보조금

인도네시아 석유산업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제 비밀사항이 아니다. 저렴한 연료의 지속적인 공장에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석유개발과 정유를 규제와 보조금의 틀 속에서만 계속시켜 왔다. 외국 석유회사들은 그들의 석유의 일부를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매각하여야만 할뿐 아니라 이들 외국석유회사들은 석유판매로부터 얻어지는 그들의 이익의 상당한 몫을 인도네시아정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정유사업 또한 국영석유회사의 독점적인 활동영역에 속한다.

저렴한 가격—그리고 판매와 이익의 큰 부분이 국영석유회사에 귀속되는 현실—은 이제 외국기업체의 관여에 있어 세계의 다른 곳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89년 이전에는 인도네시아의 유전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외국석유회사들은 그들 원유의 8.5%를 배럴당 20 미국 센트에 불과한 가격으로 국영 석유회사에 매각하였던 것이다. 자카르타에 있는 우노칼(Unocal)사의 개리 칼슨(Gary Carison) 사장은 “그 가격으로는 땅속으로부터 석유를 생산해 내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

## 8. 조세제도의 개선

보다 새로운 계약에 의하면 외국회사들은 그들의 원유를 국제시장가격의 약 10% 수준으로 국영 석유회사에 매각토록 되어 있다. 보다 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카르타의 중개업체인 에이취 지 아시아(HG Asia)의 사장인 유진 갈브레이츠(Eugene Galbraith)씨는 가격이 정상적이면 “석유는 발견되는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산업계는 이미 국내 석유가격의 자율화와 외국 석유회사들로 하여금 더 많은 갱정(坑井)을 더 깊

이 침하시키고 새로운 정유설비에 투자하도록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 9. 석유가격의 통제권

이와 같은 논리는 최소한도 인도네시아의 몇몇 전략구상자들의 생각으로부터 이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국영석유회사는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정부는 그와 같은 조치로부터 야기될 정치적 열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이와 같은 일은 필요악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증거는 명확한 수치로 제시되고 있다. 즉 새로운 생산 유전은 1993년의 647개로부터 1994년에는 575개로 감소하였다. 개발유전은 1993년에 126개소이었는데 비하여 1994년에는 79개소로 감소하였으며, 이와 같은 명백한 추세는 1993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10. 새로운 유전의 발견

1994년에는 겨우 2억배럴의 새로운 석유매장량이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채취한 석유량의 50%에도 못 미치는 분량이다. 과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석유량보다 많은 새 석유매장량이 매년 발견되었었다.

인도네시아의 16개 석유생산회사 중 가장 큰 칼텍스 퍼시픽 인도네시아(Caltex Pacific Indonesia)의 부사장인 운통 술안토(Untung Suryanto)씨는 “이제 이 나라는 매일 새로운 매장량을 150만배럴 발견할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

## 11. 유전개발 촉구를 위한 제도

대부분이 외국회사인 석유회사들로 하여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시추를 하도록 밀어붙이기 위

하여 정부는 1988년 이후 네개의 분리된 인센티브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1993년에 시행된 가장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과거에는 정부가 회사의 석유판매이익의 80%를 가졌으나 이제는 보다 낮은 65%를 가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석유회사의 경영진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인도네시아의 나머지 유역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는 충분하지 못한 인센티브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칼텍스 퍼시픽 인도네시아의 사장 및 이사장인 바이하키 하킴(Baihaki Hakim)씨는 “하나의 유전을 발견하기 위하여 25개의 시추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때 특히 그러하다”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이리안 자야(Irian Jaya)에서는 3~4개의 새 우물을 굴착하는데 5천만달러나 비용이 소요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 12. 인도네시아 석유협회

한편 중국, 베트남 및 베네수엘라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추작업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노칼(Unocal)의 칼슨(Carlson)씨는 “자본보다 더 많은 기회가 거기에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였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국영 석유회사가 보다 많은 개발 리스크를 수용해 줄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석유협회는 최근에 석유회사들로 하여금 생산구역에서의 수입에서 비생산계약구역의 개발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체제는 원경구역에서의 시추를 촉진시키고 동시에 석유회사들의 수입발생 구역에서 납부하는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 13. 타당성조사와 사업착수

석유협회는 새 유전에 대한 입찰절차와 기타 규

제사항들을 보다 단순화시킬 것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석유회사는 다당성조사를 시작한 후 시추를 개시하기까지 7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에 정부는 1992년 이후 외국 및 현지회사가 새로운 정유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시켰다. 과거 13개월 동안에 33개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중 110억달러에 이르는 6개의 정유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다.

## 14. 중대한 기로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착수됨에도 불구하고 나쁜 소식은 승인받은 모든 정유 프로젝트가 수출 지향적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외국석유회사들은 경쟁적이지 못한 인도네시아 국내가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한가지 이유이다. 산업계의 내부인사는 몇몇 프로젝트는 중동투자자들이 그들이 정제한 많은 양의 석유를 중국에 수출하려는 의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정유설비는 결코 건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영 석유회사는 1개소에 약 10억달러가 소요되는 새로운 정유공장을 건설할 여력이 없다. 이 회사가 보유한 7개소의 정유공장은 일일 987,300배럴밖에 정제처리하지 못하는데 반해 앞으로의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는 2000년 초반까지 일일 처리능력 500,000배럴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 15. 30일분의 석유저장

실제로 국영석유회사는 새로운 정유설비를 건설하는 대신에 수입한 석유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새롭고 가격이 저렴한 설비를 개설하고 있다. 연료 수입이 증가할 것을 예견하고 인도네시아는 연료저장을 근해의 바지에서 육상설비로 전환함으로써 연료의 분배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있다. 국

영석유회사의 간부들은 인도네시아의 육상 저장설비가 일본의 3개월분 저장에 비해서 30일분도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16.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의 확장

한가지 희망은 액화천연가스(LNG : Liquefied Natural Gas)의 수출에 의한 외화수입이 빈 간격을 메꾸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1995년 1월에 국영석유회사와 엑손(Exxon)은 자카르타(Jakarta) 북쪽 1,100km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 있는 나투나(Natuna) 가스전의 350억달러 개발 프로젝트의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45조 입방피트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스매장량을 가지는 곳의 하나가 되었다. 만일 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LNG 처리용량을 두 배나 초과하여 연간 6,000만톤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17. 비석유부문 개발의 촉진

실제로 몇몇 상업계 내부인사는 대체에너지원의 수출은 석유수출감소에 따르는 타격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자르딘 프레밍(Jardine Fleming)의 리잘 프라세티조(Rizal Prasetijo) 부사장은 “인도네시아가 실질적인 석유 수입국으로 되는 것은 무역균형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새로운 발견을 저지한다면 새로운 석유의 수입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종말이 닦친 것은 아니다. 나는 이것이 비석유부문의 개발을 유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성장의 엔진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서서히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앉게 되는 것이다”라고 칼텍스 퍼시픽 인도네시아의 바이하키 하킴(Baihaki Hakim)씨는 말한다.

(자료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5.5.11)